

강진군, 명품 수국 수출 40만개 달성



강진 방문의 해를 맞아 강진군의 전략적인 마케팅이 화훼산업에 자신감을 불어 넣고 있다.

화훼 시장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말과 다르게 강진군 화훼산업 종사자들의 얼굴에는 미소와 활기가 가득하다. 특히 '수국하면 강진' 꽃중에도 고급 꽃이라는 강진 수국이 강진군이 이달까지 누적판매량 40만개를 돌파했다.

2011년 일본으로 시범 수출을 시작으로 지난해 4월 강진의 명품 수

국이 본격적인 일본 수출 길에 올라 이뤄낸 값진 성과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지난 14일 강진군농업기술센터에서 '강진수국 일본수출 40만본 기념식'이 열렸다. 강진원 강진군수를 비롯해 절화수국 생산 전문 법인인 그린화훼영농조합법인 회원, 수출을 지원해준 AI 광주전남지역본부 및 경남 대동농협 관계자, 관련 농업인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지난 2006년부터 시범사업으로

2006년 시범사업 시작 현재 20농가4.5ha 재배
전국 30% 국내 최대 생산·2011년 1차 수출

시작한 강진 수국은 현재 20농가가 4.5ha 면적에서 재배되고 있다. 전국 면적의 30%, 전량의 56%를 차지한다. 국내 최대 수국생산지역으로 전국 화훼산업에 큰 비중을 차지할 뿐더러 어디 내놓아도 손색이 없을 만큼 고품질을 자랑한다.

2011년 3만개의 수국 시범 수출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누적 수출물량이 41만개, 금액으로 따지면 22억 원이다.

국내 수국 총 수출물량의 88%를 점유해 명실상부 전국 제1의 절화수국 수출단지로 자리매김한 것으로 모자라 군은 수출 경쟁력을 더욱 높이기 위해 1억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일본 화훼시장까지 점유해 나가고 있다.

이외에도 군은 수출용 수국의 용기 양액재배 시범사업에 5천만원, 인위화색조절 시범사업에 2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화훼농가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하고 있다.

이날 강진원 강진군수는 "FTA 시장 개방에 따라 중국·폴란드 등 수입 꽃들이 유입되고 중국 관광객 감소 부정적당 금지법 시행 등 여러 요인으로 화훼시장이 위축된 상황에서 이런 성과를 이뤄낸 수국 수출 법인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군도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농업인들과 소통하며 항상 같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수국 수출 전문 법인인 '그린화훼' 영농법인 김양석대표는 "경영방법의 발표로 화훼재배 농업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수국은 수출을 통해 어느정도 숨통이 트고 있다. 앞으로도 수입국의 기호에 맞게 품질향상과 수확후 처리과정에 대해 깊이있게 공부해 세계 최고의 수국을 만들어 보겠다"고 말했다.

강진=최재영 기자



“곡성관광택시” 타고 무더위 날려 버리세요

기본 3시간 6만원...이용객 원하는 장소로 이동 가능

여년에 비해 빨리 찾아온 무더위를 피해서 산과 바다 그리고 강변 등 시원한 곳을 찾는 관광객이 늘어나고 있는 시기이다.

곡성군 역시 섬진강변과 대항강변을 따라 시원하게 펼쳐지는 풍광과 곳곳에 숨어있는 시원함을 찾아 즐기려는 사람들의 발길이 지속되고 있다.

그곳의 중심에는 지난 6월 KBS 다큐멘터리 3일 방송과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전국적인 인지도가 상승한 곡성관광택시가 있다.

이제 곡성을 여행하는 사람이려면 직접 곡성관광택시를 타 보았거나, 주위 인소문과 방송 등을 통해 한번쯤 안 들어본 사람이 없을 정도로 자유여행 안내기도 곡성관광택시의 유명세가 식을 줄 모르고 계속되고 있다. 7월 한 달만도 벌써 20여건 넘게 예약되어 있을 정도이다.

곡성관광택시 운영초기에는 자유여행을 즐기려는 2~30대 젊은 층이 주를 이루었다면 지금은 인소문을 타고 관광택시의 최대 장점인 자유로움 속에서 편안한 사람과 함께 곳곳에 숨어있는 고향

의 옛 향수를 찾아 여행을 즐기려는 5~60대 동창생들 그리고 가족단위 방문객들이 늘고 있다.

곡성관광택시가 인기를 누리고 있는 데는 택시기사의 재미있는 입담과 친근함도 한 몫을 차지하고 있다. 각자 다른 성향을 가진 10명의 기사가 들려주는 또 다른 곡성이야기에 빠져 이곳저곳을 둘러보다 보면 기본 3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린다. 더불어 보통의 여행에서는 느낄 수 없는 관광택시의 편리함은 덤으로 얻을 수 있는 호사이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곡성관광택시가 시원한 하와이안 복장으로 돌아와 여름 손님맞이 준비를 마쳤다.

올 여름 곡성의 숨은 매력을 찾아서 가장 편안하게 내 마음대로의 시원한 여행을 즐기고 싶다면 이 시기에 딱 제격인 곡성관광택시(예약전화 1522-9053)를 찾아 떠나길 바란다.

곡성관광택시는 기본 3시간 6만원에 이용할 수 있고 곡성의 어디든 이용객이 원하는 장소로 자신 있게 이끌 것이다.

곡성=김광휘 기자

영암군 보건소 감염병 예방 “함께해요”

기찬랜더서 캠페인 실시

영암군보건소에서는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해 국립공원 월출산 천황봉 자락 계곡수를 이용한 기찬랜더서 자연형 풀장

개장식에서 수많은 국내·외 피서객과 군민들을 대상으로 지난 15일 행사장 주변에서 부채 등 감염병 예방·홍보 물품 배부와 함께 하절기 감염병 예방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여름철 발생되기 쉬운 장염비브리오패혈증 등 '수인성(水因性)·식품매개 질환'의 예방수칙과 숲·풀에서 진드기 등으로 감염되기 쉬운 쭉쭉가무시증, SFTS에 대한 예방요령 등을 집중 홍보하였다.

영암=강원훈 기자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 신명나는 한판

내달 3일부터 4일간 원도심 일대 국내외 다채로운 공연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이사장 박석규)이 올해도 다채로운 공연으로 무대위를 잇게 한다.

국내 갯돌이 주관하고 (사)세계마당아트진흥회가 주최하는 올해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은 오는 8월 3일부터 6일까지 목포자안다니는거리와 원도심 일대에서 펼쳐진다.

목포세계마당페스티벌은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4년 연속 지역대표 공연예술제에 선정됐고 서울 거리예술축제, 전주 세계소리축제 등과 함께 2018 평창동계올림픽 분위기를 조성하는 전국 14개 대표축제로도 선정되는 등 국내 정상급 축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도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이 풍성하게 준비된 가운데 기획이슈로 마당길은은집, DJ67, 시민아외극, 역사의 거리여행, 갯돌마당놀이, 민인계 놀이 등이 관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해외초청작들도 다수로 미국, 태국, 캐나다, 몽골, 베트남, 코트디부아르, 볼리비아, 일본 등 8개국 13개팀이 민속음악, 마임 등을 선보인다.

국내 공연도 마당극, 풍물, 탈춤, 퓨전국악, 마임, 춤, 인형극, 퍼포먼스 등 다양하다. 여수, 순천, 곡성, 무안, 신안, 진도 등 전남지역의 문화예술가들이 예향남도 초청작으로 참여해 남도의 멋과 신명을 전달한다.

직접 만든 예술품을 파는 '오거리시장'의 판매자, 아미추어 길거리 예술가의 경연대회인 '마당아티스트 선발전'에 참여할 거리예술가 등도 모집 중이다. 아울러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이다.

목포=김광휘 기자

해남군, 창원시 농협서 21일부터 직거래 장터

창원해남의 농수특산물이 경상남도 창원을 찾아 영호남의 특별한 만남을 갖는다.

해남군은 오는 7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창원시 소재 남창원농협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에서도·농·상생 땅끝해남 농수특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최한다.

직거래 장터에서는 해남 제철농산물인 미니밭호박을 비롯해 해남 배추를 이용한 즉석김치, 감과 멸치 등 건어물, 장류, 각종 가공식품 등 50여종의 차별화된 특산물을 농가 직거래를 통해 시중보다 저렴하게 판매할 예정이다.

또한 행사기간 중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해남군 직영 농수산물 종합쇼핑몰인 '해남미소' 홍보 기념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남창원농협 농수산물유통센터는 1일 평균 7000여명의 고객들이 이용, 약 3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전국 최대 규모의 단위농협 농수산물 전문매장이다.

이번 특판행사를 통해 경상도 지역 소비자들이 땅끝 해남의 농수특산물을 접하는 기회를 마련해 향후 판로 확대에도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해남=김광휘 기자

곡성군, 멜론 수확 4륜 전동운반차 제작 공급

곡성군은 멜론재배 농업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수확작업의 편이를 도모하고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을 추진해 농가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고 있다.

이번에 공급된 편이장비는 무거운 날씨에 수확한 멜론을 하우스 밖으로 운반하는 작업을 개선하기 위해 멜론의 재배여건과 환경을 고려해 시제품을 기준으로 3차례의 현장 연시회를 통해 핸들조작 각도, 보안 등의 개선작업과 벤치마킹을 통해 곡성지역에 적합한 4륜 전동운반차를 주문 제작해 공급했다.

곡성=김광휘 기자

◆ 광주 지역 안내			
계림 010-3635-7195	백운 010-2943-8374		
중앙 010-3365-6200	광산 010-5604-6533		
학운 010-4166-1810	송하 010-8620-1925		
광천 010-6612-8599	임동 010-2656-4543		
금호 010-6636-2775	양산 010-2646-3205		
상무 010-5359-7406	오치 010-7532-3313		
풍암 010-6634-5084	북구 010-4601-2080		
화정 010-8438-3819	동운 018-611-7751		
봉선 010-9474-0212	용봉 010-4601-2080		
진월 010-2615-8374	두암 010-2684-6091		

◆ 시 외 안내			
강진 010-4606-0660	여수 010-6661-6669		
구례 010-2325-8439	영광 010-3611-3081		
나주 010-3625-6665	영암 010-5655-2415		
담양 010-3629-9016	완도 061-552-5005		
목포 010-7344-0200	장성 010-5287-7711		
하당 010-5508-3830	장흥 061-862-7787		
무안 010-5234-2313	진도 010-3081-5203		
보성 061-853-9125	함평 011-641-3189		
순천 010-2300-9083	화순 010-2077-6464		
광양 010-5604-6981	고흥 010-4656-6293		
해남 010-8600-2768	곡성 010-3615-1088		

화순 이서적벽

“지역언론의 바른길을 열어갑니다”

湖南新聞

전라도의 정문지

▶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및 독자 의견 (062) 224-5800

이메일 : ihonam@naver.com

팩스 : (062)222-5548

▶ 본사 :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광주시 동구 학동 633-3 번지 정도프라자 5층)